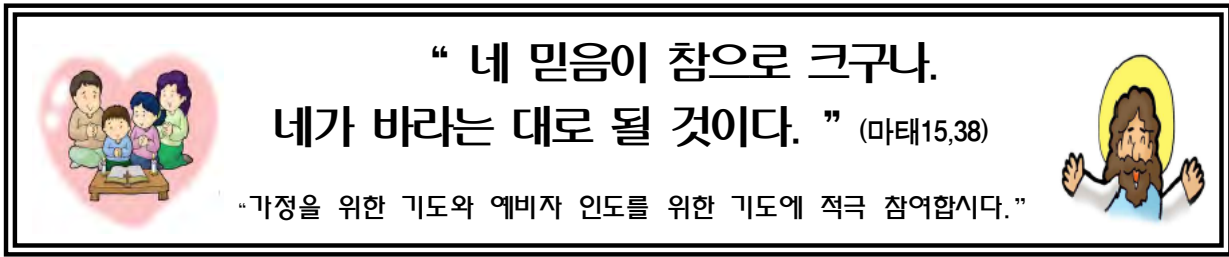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7월 기도지향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김지민(글라라), 김민정(리디아)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한나) 가정

오늘은 "연중 제15주일" 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이르는 말씀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돈은 물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약간의 식량, 갈아입을 옷이나 신발, 심지어 여벌의 속옷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 온전하게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듯 제자들도 가난한 모습으로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도와주어야 할 형편의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우리의 손에 재물이 들려 있고, 우리의 발에 화려한 신이 신겨져 있고, 우리의 입이 미사여구에 길들여져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지 못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주일에 "평협회의" 가 있습니다.

다음주일 미사 후에 평협회의가 있습니다. 평협 분과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7월 22일(주일) 점심식사 후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시,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함께 나누시다!! - "병자 영성체란"

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거동할 수 없는 병자들처럼,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례(參禮)하여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처지의 신자에게 성체를 모셔가 영(領)해주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병자 영성체'라고도 하는데, 병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는 공복재(空腹齋)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하루에 두번의 영성체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준비는 봉성체 날을 표시해 두었다가 잊지 않고 환자와 집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성체를 모시기 때문에 병자의 집이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병자를 청결하게 씻기고 가능하면 입안도 깨끗이 닦아줍니다. 상을 준비하여 상 위에는 흰 보자기를 깔고 십자고상, 초, 성수, 맑은 물(성체를 모시기 쉽게 함께 마실 물), 수저, 성냥(라이터)을 준비하고 가능하면 꽃도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목 | 성 체 | 마 침 |
|-----|-----|----------|-----|
| 461 | 216 | 180, 166 | 399 |

주일미사 복사

| | 시종 복사 | 향 복사 |
|------|-----------|------------|
| 이번주일 | 이우영(가브리엘) | 홍순익(마르티노) |
| | 이원준(요 한) | 김준영(요 셉) |
| 다음주일 | 문석찬(요 셉) | 김태중(예레미야) |
| | 문호진(안토니오) | 문예나(요 안 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
| | 제대봉사 | 제2독서 |
| 이번주일 | 김주연(세실리아) | 류기범(요 셉) |
| | 김명은(안 젤 라) | 신혜경(마 리 아) |
| 다음주일 | 김명은(안 젤 라) | 정수한(베 드 로) |
| | 최은미(아 네 스) | 김주연(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 | |
|------|-------------------------------|
| 이번주일 | 김명은 안젤라, 조경희 요안나 Fr, 박희영 카타리나 |
| 다음주일 | 지은경 리브가, 이대숙 사비나, 박정옥 수산나 |

헌금 봉사자

| | | |
|------|------------|-----------|
| 이번주일 | 최은미(아 네 스) | 문석찬(요 셉) |
| 다음주일 | 신혜경(마 리 아) | 박희영(가타리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두셔서 감사합니다!!!

- <7월 8일>
- 미사참례 : 명
- 주일헌금 : \$
- 교 무 금 : \$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아무 것도 지니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한 농민 주일입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민들에게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화해설

살티 김영제 베드로 묘
부산교구,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소재.

부산 지방 첫 교우가 된 조부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김영제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부친과 함께 여러 교우촌을 전전하다가 간월로 돌아와 공소를 설립했다. 1860년 경신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그는 1868년 무진박해 때 다시 체포되어 대구 감영에서 극심한 고문과 문초를 당해 불구의 몸이 되었다.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박해가 뜬해지자 농사가 가능한 평지를 찾아 현재의 살티로 이주했으나 혹독한 고문으로 인한 장독으로 인해 1876년 '장하 순교(杖下殉教)'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산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아모 7,12-15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여라.>



주 님 저 희 에 게 자 비 를 보 이 소 서 또 한 저 희 에 게 구 원 을 주 소 서.

○ 주 하느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사오니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

○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 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께서 행복을 내려 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

제 2 독서 : 에페 1,3-14 <또는 1,3-10>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 마르 6,7-13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말씀의 이삭

“잃어버린 목적과 이유”



어떤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계획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왜 이 행사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행사의 목적이나 그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단순히 그 행사를 위한 주변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본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이 왜 나에게 맡겨졌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봄으로써 본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력만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일을 맡겨주신 하느님의 권위와 주위 동료들을 통해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파견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니다. 먼저 파견 받은 사람은 지팡이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혹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조차 지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파견된 제자들이 지닐 수 있는 것은 동료 한 사람과 스승께서 부여해주신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뿐입니다.

특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내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료와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내 생각보다는 너의 생각,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너와 힘을 합하고, 하느님의 힘을 청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생을 뻔히 아시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무엇인가를 가진다는 것, 그것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짐으로 인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본래의 사명이 흐려질 수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들을 파견한 스승의 가르침이나 동료의 도움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력의 힘에 의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따로 데리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이 맞붙어서
하루 한시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이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사는 나와 또 하나의 나는
서로 가끔 불목하기도 하고, 아예 어느 한 쪽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좀 더디게 가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들어서 다투고 그만 길바닥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다치게 한 셈입니다.
이런 나와 또 하나의 내가,
아주 사이좋고 평화롭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들어서 얼마나 하나처럼 일치되었는지
매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으며,
서로가 그렇게 자유롭고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하나인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 그건 나를 일치시키고 온유하게 하며
하는 일이 매사에 착하고,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는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누구한테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곧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조차 일치하지 못하니
그 표정이 늘 경직돼 있으며 평화롭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지혜롭고 충명하지 않다면
생활 중에 내가 나를 얼마나 힘겹게
데리고 사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또 나와 또 다른 내가 얼마나 자주 따로따로 길을 가고
그렇게 떨어진 거리가 어느 만큼인지
재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부들의 신앙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의 편지 중 2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도적을 가두는 옥에 수감되었고 아전들은 저의 말하는 것을 들어 보고는 분명히 조선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튿날 저를 관장 앞에 대령시켜 놓고 관장이 내가 누구냐고 문초하기에,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기는 중국 가서 하였소.”라고 대답하자 중국말을 하는 통역을 불러 저와 이야기를 시켜 보았습니다. 1839년 박해 때 배교자는 조선 소년 세 명이 서양말을 배우러 마카오로 떠났음을 고발하였을 뿐 아니라, 저와 함께 잡힌 교우들이 벌써 제가 누구라는 것을 실토하였으므로, 오랫동안 저의 신분을 감출 수 없음을 짐작하고, 관장에게 “나는 그 소년 셋 중의 하나인 김 안드레아”라고 자백하는 동시에, 고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고생하였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던 관장과 구경꾼들도 “가련한 소년, 어려서부터 허다한 고생을 많이 당하였구나.”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로는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배교하기를 독촉하기에 “임금 위에 또 천주께서 계시어 당신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니, 그를 배반함은 큰 죄악이라, 임금의 명령이라도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교우들을 대라고 위협하기에, 우리에게는 애덕의 의무도 있고 천주께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까닭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교회의 도리를 묻기에, 저는 장황한 설명을 시작하여 천주의 존재, 만물의 조성, 영혼의 불멸, 지옥과 천당, 조물주를 숭배할 의무, 외교의 헛되고 거짓됨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관장들은 대답하기를 “너의 교도 좋거니와 우리 유교도 좋으니 우리는 유교를 한다.” 하기에 “당신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우리를 편히 지내도록 할 것이고 우리와 서로 화목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그렇기는 고사하고 당신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가장 극악한 죄인과 같이 혹평을 하니, 우리 교를 옳고 좋은 교라고 인정하는 당신들로서 마치 극악한 교와 같이 박해하는 것은 당신들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반박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그네들은 다만 어리석은 웃음을 띄울 뿐이었습니다.

관장은 체계 영어로 된 지구 전도를 번역하라고 분부하기에, 여러 가지 채색으로 두 장을 그렸는데, 한장은 임금께 드릴 것이며, 지금은 대신들의 부탁으로 간단한 지리서를 편술하기에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대한 학자로 인정합니다. 가련한 인생들, 저는 감히 주교 각하게 저의 어머니 우르술라를 부탁드리웁니다. 저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못 본 아들을 불과 며칠 동안 만나 보았을 뿐 또다시 홀연 잃고 말았으니, 각하게 간절히 바라건대, 슬픔에 잠긴 저의 어머니를 잘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는 진심으로 각하의 발아래 엎디어, 저희 사랑하을 부친이요 공경하을 주교님께 마지막 하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베시 주교님과 안 신부님께도 공손히 하직을 고하옵니다. 이후 천당에서 만나 뵈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힌 탁덕 김 안드레아.

*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의 편지에서

(제23신의 발췌, 옥 안에서, 1846년 8월 26일: 이원순, 허인 편저, 1975년, 정음사)